

카보폴비트를 활용한 설사 치료 체험기



동물약품은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일반 축산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약품명으로 불리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다. 특히나 외국어로 쓰여진 대부분의 국내외 동물약품은 한국 축주들에게는 매우 불친절한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보니 축주들 나름대로 약을 부르는 별칭들이 생긴다. 대관령 목장에 근무할 때, 진료 시 목부나 수정사들의 도움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일반 직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려면 시술자인 수의사는 약이나 기구명을 알기 쉽게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가령 포비돈은 ‘빨간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는 ‘버كم 소독약’으로, 알코올은 ‘술 소독약’으로 불렸다. ‘네기산트’를 ‘파란 가루약’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로 제품을 약 색깔로 분류하면 이름을 부르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쉬워졌었다. 이 경우 역시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려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기만의 빛나는 색깔을 가진 약이 ‘카보폴비트’였다. 숯가루인 활성탄 즉 카본이 주 성분이라 이런 명칭이 붙었겠지만 우리로선 도통 기원초차 알 수 없는 이름이다. 늘상 접하는 수의사는 그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만 목부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름을 외우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붙인 게 ‘까만 약’이었다. ‘까만 약’이란 명칭이 공식화되려면 몇 가지 규칙이 필요했다. 첫째는 효능이 좋아야 하고, 둘째는 자주 쓰여 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 이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린왕자’란 책에 나오는 여우와 어린왕자의 대화처럼 서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좋은 이름도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대관령 생활 3년 내내 이 이름을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건 그 만큼 이 약을 맛있게 썼기 때문이다.

대개 이 약이 쓰일 때는 이유 전후 송아지들의 설사 치료를 위해서였다. 애네들이 설사를 하는 주요 원인은 대장균에 감염되었거나 식이성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건 이들 설사는 초기엔 거의 식욕부진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아지 사육사를 맡고 있는 아주머니께서 “또 설사 하네” 라고 하실 때면 난 무엇보다도 효소제와 엘트라드와 더불어 이 약을 챙겨들고 나섰다. 송아지는 잘 먹지만 그래도 맛이 없는 건 전혀 먹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엘트라드로 단 맛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효소제로 정상효과를 살리고, 약간의 적당한 항생제를 선별해 넣어 유해균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지사작용과 해독을 위해 ‘카보폴비트’ 한 숟가락의 넣고, 물을 적당량 부으면 드디어 까만 각테일약이 완성된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먼저 맛을 본다. ‘음! 이정도면 괜찮아!’ 사람의 입에 맞으면 송아지의 입맛에도 대개 맞는다. 역시나 송아지는 쪽쪽 알뜰히 잘 빨아주었다. 단 물 양을 너무 많이 하면 도중에 그만 빨 수가 있으니 주의할 것. 약을 먹이면 일단 설사가 가라앉고 다음날 아침엔 까만 똥을 한 덩어리 싼 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똥이 부드러운 황금똥으로 돌아온다. 난 우연히 만든 이 까만 각테일의 효과를 톡톡히 즐겁게 경험했다.

이런 효과를 지켜본 목부들이 자기들이 설사를 해도 나에게 와서 까만 약 좀 달라고 졸라댔다. 주의를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송아지 기준으로 처방을 해 주면 정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도 금방 이 까만 약의 팬들이 되셨다.

이 제제는 옛부터 숯가루를 복용케 했던, 우리 전통의학이나 고대 서양의학의 설사와 독 중독시 일차적으로 처방된 것과도 통한다. 더구나 천연제제 특성상 부작용은 거의 무(無)에 가깝다. 싸고 때깔 좋고 효과 만점인 이 약은 내 약장에서 늘 소중한 약이다. 동물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다음날 “왜 이상하게 똥이 까매요?” 하고 물으면 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용히 미소를 날린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